

ZERO Gravity

2021-1 파란학기
박가을, 윤정민, 권현진

About Us



권 현 진

촬영 감독
편 집

박 가 을

촬영 감독
편 집

윤 정 민

총 감 독
제 작 지 원

Contents

01

도전과제 소개
및 목표

02

실패 기획
및 교육적 효과

03

기억의 윤
기획의도 및 목표

04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05

기억의 윤
진행과정: 야외 촬영

06

기억의 윤
교육적 효과

07

향후 계획

08

하이라이트 영상
및 트레일러

Challenge and Goal

저희의 도전 과제는 국제적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파란학기 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내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출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큐멘터리라는 영상으로 담아내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을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문화기획달, 일다를 통한
자료조사 및 섭외 진행



project 01

비혼 여성의 귀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농촌의 생활은 따뜻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하지만 여성 홀로 그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농촌사회의 주도권은 중년 남성에게 있으며, 여성은 그를
돕는 부차적인 존재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아예 농촌 사회에 속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촌 비혼 여성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농어민신문을 통한
자료조사 및 섭외 진행



2020년도 <한국농어민신문>에서 게시된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큰애기의 농촌살아' 기사 관련하여 메일 드립니다..

some, Awe <rkdmf824@ajou.ac.kr> 3월 18일 (목) 오후 3:35 (2일 전) ☆ ↶ ⋮
webmaster@ajou.ac.kr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주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기을, 윤정민, 권현진입니다.
저희는 현재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학교가 지원하는 '파란학기'라는 제도 하에 '비혼 여성
의 귀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에 게시된 2020년도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큰애기의 농촌살아' 기사를 읽고 메일 드리
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도시에서 살다보니 농촌의 삶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농촌에서의 삶과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김현희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여성으로, 그것도 비혼 여
성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구보다 단단해야 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차별받아
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기사 속 인터뷰이분을 직접 만나 뵙고 김현희님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사를 기고하신 김현희님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하여 어떻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
니다.

메일 외에 다른 연락을 원하시면 다음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9421-0240

답장 또는 연락을 주신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농어민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의 삶을 담아내는 <한국농어민신문>을 응원합니다!
박기을, 윤정민, 권현진 올림.

■ 진행 중단된 이유

기획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총 10명이 넘는 귀촌 비혼 여성분들에 대한 섭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큐 출연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의 답변을 통해 귀촌을 선택한 비혼 여성들이 미디어의 노출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교육적 효과

- 자료조사부터 매체를 통한 섭외 연락까지, 섭외와 관련된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인물 선정, 개인적인 사정, 사회적인 문제 등 섭외 진행에 있어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project 01

비혼 여성의 귀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촌 비혼 여성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project 02

비혼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생각을 인터뷰



20대 여성들의 비혼

현재 많은 20대 여성들이 비혼을 결심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룬 여성들의 비혼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20대 여성들이다.

그런 우리가 비혼을 지향하는 '20대 여성들의 비혼'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 진행 중단된 이유

이미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비혼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고, 결혼 적령기가 아닌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차별화 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또 표현 방법으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 교육적 효과

-차별성이 콘텐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확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roject 02

20대 여성들의 비혼

“그런 우리가 비혼을 지향하는
‘20대 여성들의 비혼’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projec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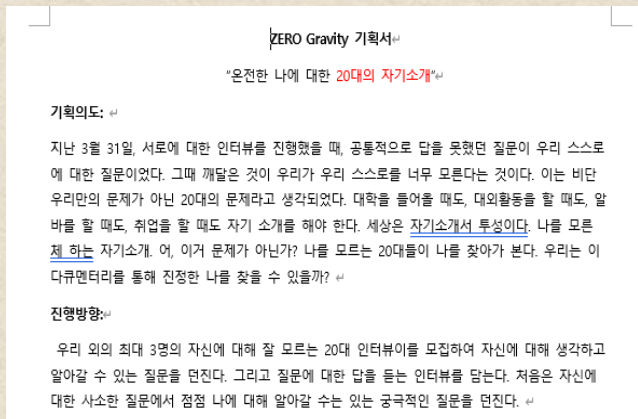
20대들의 자소서: 나를 찾아서

서로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답을 못했던 질문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20대들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대학을 들어올 때도, 대외활동을 할 때도, 심지어 알바를 할 때도 자기 소개를 해야 한다.

나를 모른 채 하는 자기소개로부터 벗어나서, 20대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사소한 질문을 포함한
‘나’에 대한 인터뷰 진행



기획서로 발전

project 03

20대들의 자소서: 나를 찾아서

“나를 모른 채 하는 자기소개로부터 벗어나서,
20대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 진행 중단된 이유

이 기획에 대해 현직 피디님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드백에 따라, 일단 나를 찾아간다는 소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의 신뢰성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기획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적 효과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함을 간과하고 가능할 것이라 단정 지은 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의 윤

기획의도 및 목표

24살, 대학생, 윤정민. 학교에서 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다. 어떤 걸 찍어야 할지 계속 고민하던 중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 가서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할아버지. 한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내가 엄마, 아빠, 할머니, 고모 각자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모아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이 다큐멘터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의 죽음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억의 윤

기획의도 및 목표

잊혀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마지막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세월에 따라 가족들에게 조금씩 잊혀져 간다. 가족들이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을 모아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04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남편으로서 1등은 안돼도 그래도 70점은 드려야 하지 않나?"

조금 점수를 더 드려보면 5점, 최대 75점!"

-할머니-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기억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기억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야 갸짜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아버지, 아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찾는 사람이겠지?"
-고모-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기억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 있거든. 나 군대 갈 때.

그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난 처음 봤거든."

-아빠-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기억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결 같으셨지, 항상 사진에서 보는 그 표정들"
-엄마-

04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기억될 것 같아."

-나-

기억의 윤

진행과정: 인물 인터뷰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모, 그리고 할머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부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진 할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기억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5 기억의 윤 야와 촬영

가족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다양한 장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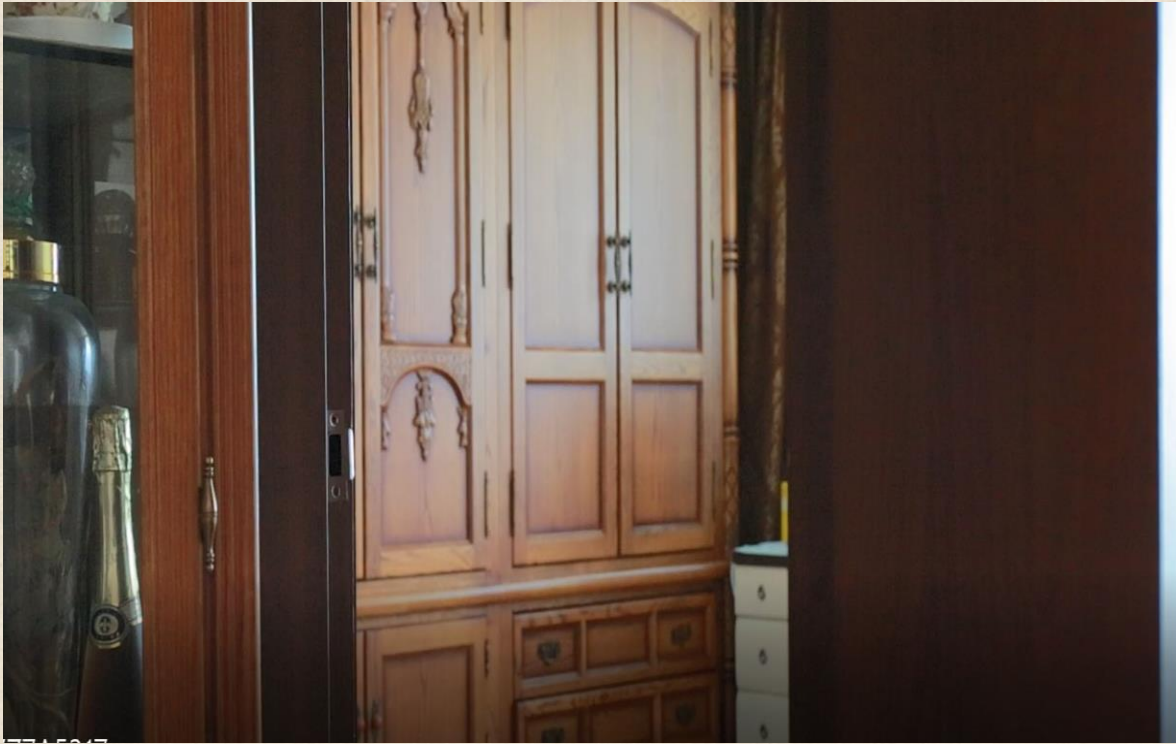
삼풍수영장
사진 속에 남아있던 곳
할아버지에 대한 고모의 첫 기억



수원시청
공무원이셨던 할아버지가 근무하시던 곳

05 기억의 윤 야와 촬영

가족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다양한 장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옛날 집
할아버지의 마지막 집



성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05 기억의 윤 야와 촬영

가족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다양한 장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남문 영동시장
할머니가 장사하셨던 곳
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후회가 남는 곳



전
할머니의 50년이 담긴 곳
하지만 전을 다니시지 않으셨던 할아버지

05 기억의 윤 야와 촬영

가족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다양한 장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현재 할아버지가 계신 곳

교육적 효과

01 기획하는 법

앞선 실패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인 메시지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게 됨.

02 실무적 경험

촬영을 진행하면서 촬영, 음향 장비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인터뷰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됨.

03 팀워크

계속되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
팀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 협동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음.

04 자기주도성

소재 개발, 기획,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콘텐츠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음.

ZERO Gravity 향후계획

향후계획



트레일러

3분 30초 길이의 트레일러를
성과발표회까지 제출



완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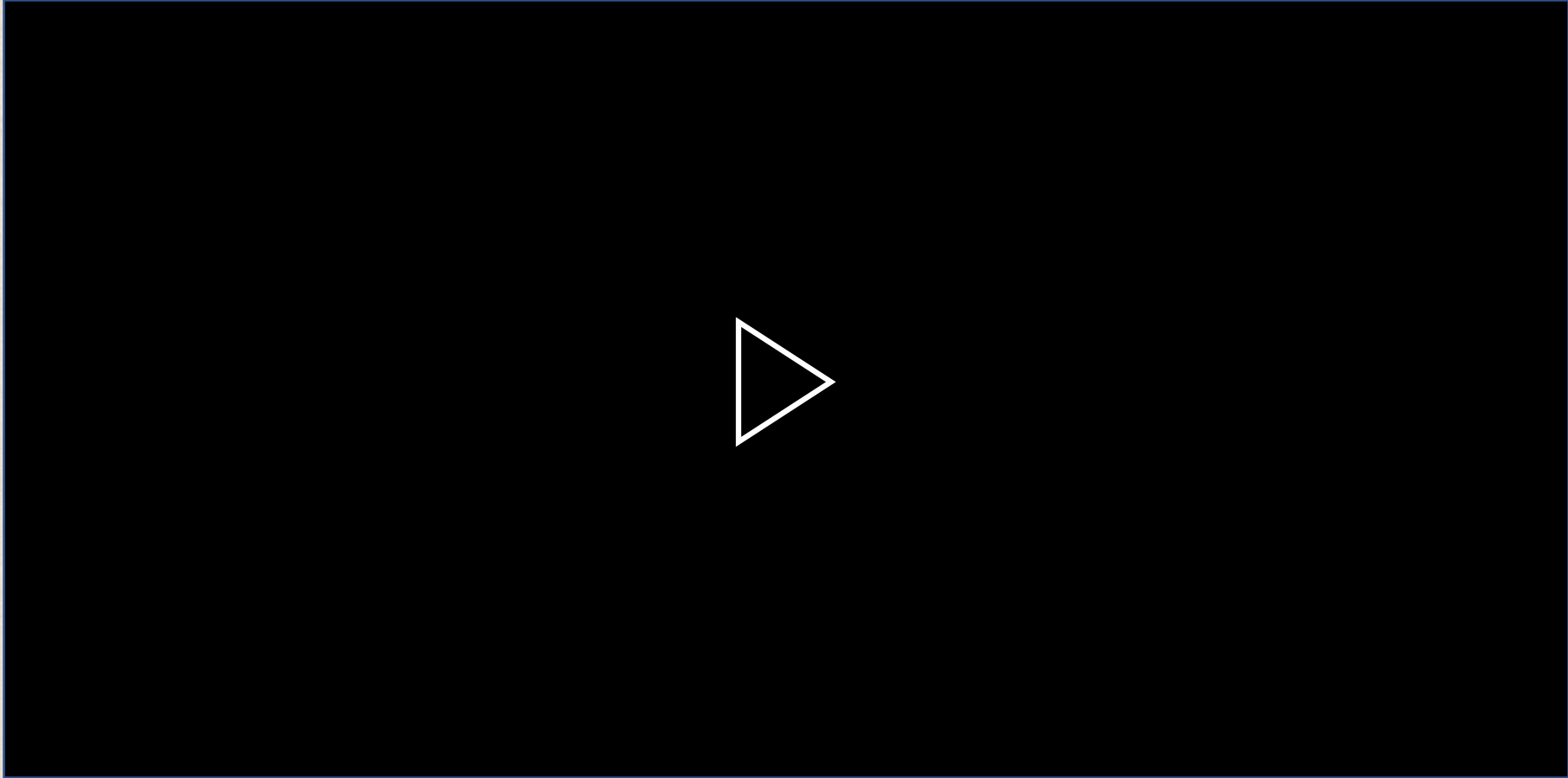
정규학기가 끝난 후 본격적인 편집
및 후반 작업을 진행하여 7월까지
다큐멘터리 완성본 제작 예정



다큐 페스티벌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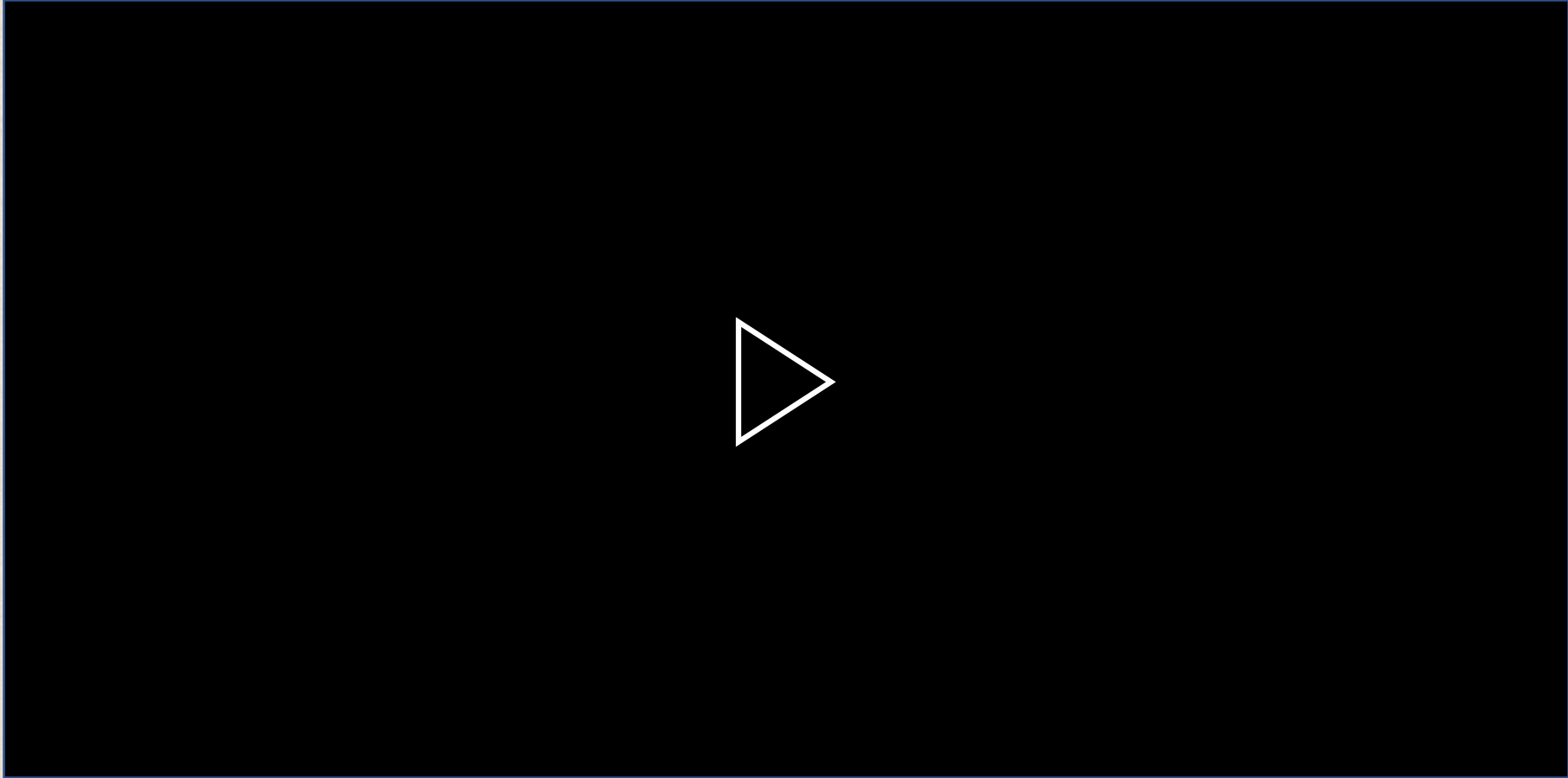
완성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

08 기억의 윤
하이라이트 영상



클릭 시 동영상 링크가 연결됩니다.

08 기억의 윤 트레일러



클릭 시 동영상 링크가 연결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